가 되었으며 옹은 그 중에 서석장에서 살았다. 이러한 석장에 두물머리로 부르는 하양수리가 합쳐져 양수리를 이루었다. 부친 석호공은 논은 없지만 밭 2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부농이었다. 게다가 그곳에서 면장을 하다 서울로 떠난 대지주 하나가 부친의 절친한 벗이었는데 부친이 그 부탁으로 소작농을 관리해 주는 사음舍音 역할을 대행해 주어 재력이 유족했고, 부친은 또 일대 주민을 상대로 사금융업을 하여 그 돈을 저리로 갖다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였다. 어머니의 친정 또한 양평군의 강하면에 있는 부농 집안이었다.

이처럼 유족한 집안에서 유년기를 보낸 옹은 어린 소년으로서 소학교에 들어가면서 고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맛보게 되었다. 당시 소학교가 양수리에는 없고 양서면 사무소가 있는 국수리에 6년제 양서공립소학교가 있었다. 그리고 양수리에서 국수리가 20리인데 이 거리를 걸어서 통학해야 하였다. 당시 신발은 고무신이란 것이 하도 귀해서 일본식 나막신인 '게다下'와 역시 일본식 짚신 '와라지草鞋'였다. 이것을 신고 어린 나이에 20리길을 매일 통학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부모들은 자식에게 매우 엄격하여 이런 정도 고통에 사정을 두거나 안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등하교길에 어디를 어떻게 들러서 무엇을 해오라는 식의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날이 드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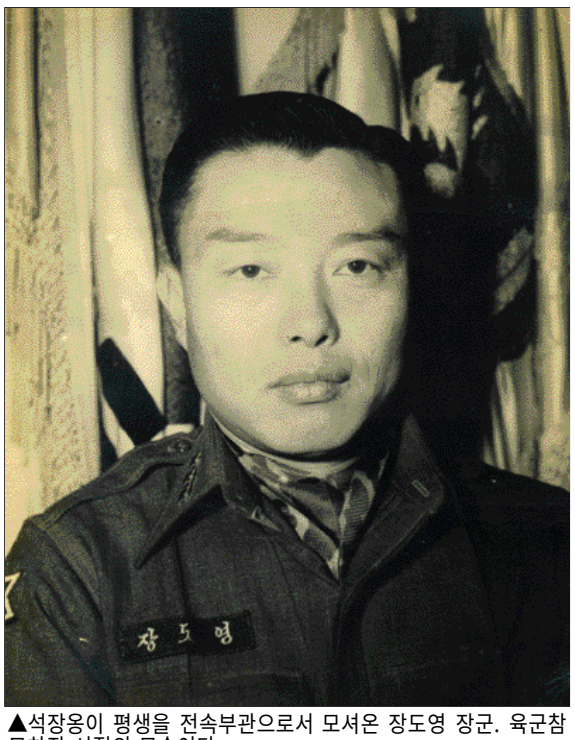
옹은 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1등을 하기 시작하여 한번도 2등으로 밀린 일이 없었다. 어떤 때는 다른 데서 4년제 소학교를 다니다가 이 학교에 저학년으로 전입해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조차 제치고 1등을 하여 선생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2학년 때 1년 담임을 한 여교사 남옥동南玉童 선생을 옹은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다. 남옥동 선생은 양서소학교에서 그를 딱 1년 가르치고 서울 필운동의 매동소학교로 전근하였다. 남선생은 전근을 가서도 매년 옹에게 운동화 한 켤레를 소포로 보내왔다. 당시 운동화는 한 학급당 1년에 다섯 켤레 정도가 배당되어 나왔다. 이를 제비뽑기로 하여 당첨이 되어야 구입할 수가 있는데, 남선생이 어떻게 중은 학생을 잘 보고 또 안스러이 여겨 한 켤레를 아꼈다가 자기 돈으로 사서 보내주었던 것이다. 뒤에 성인이 된 옹이 국군장교 복장으로 수소문하여 남선생을 찾아갔을 때 남선생은 교사직을 그만두고 한 경찰서장의 부인이 되어 있었다.

"묻고 추적해가며 천신만고 찾아갔더니, 글쎄 그 선생님 남편이 웬 젊은 놈 장교가 가 정부인을 집까지 찾아왔나 하고 썩 괴이쩍게 보는 거야. 그래 자초지종을 말하고 어릴적 선생님 은혜를 잊지 못해 이렇게 찾아뵙고자 왔다면서 큰절을 했더니, 아니 이 경찰서장이라는 이가 내 절을 그저 앉아 받는 거야, 맞절로 받지를 않구 말이야. 아무리 은사의 남편이라 해도 그렇지, 내 그래도 안동권가 양반의 자손인데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나. 곁에서 이 꼴을 보고 우리 남옥동 선생님이 당황하고 민망해 하시더군. 그 후로 다시 찾아가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석장옹의 얼굴에는 동심이 서리고 있었다.

옹이 조금 자라 소학교의 고학년이 되면서는 일제가 '대동아전쟁', 즉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어린 소학생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동원하여 혹사시켰다. 날이면 날마다 공부는 둘째로 제치고 산야로 내몰려 다니며 솔괭이와 송진을 채취해다 모아서 '공출供出'이라는 것을 하는 게 학과였다. 그렇게 하면서 6학년이 되었는데 양수리에서 서쪽으로 강건너 바로의 양주군 조안면에 조안공립국민학교가 6년제로 개교되었다. 옹은 즉시 이곳으로 전학하여 6학년에 편입학하였다. 조안국민학교는 양수리에서 강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이니 5리도 채 안되었다. 20리를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가까이로 전학하니 날아다닐 듯, 살 것만 같았다. 1945년 3월, 그 나이 14세 때 조안국민학교를 졸업하니 그 해에 해방이 되었다.

당시 학제로는 국민학교를 봄 3월에 졸업했는데 중학교에는 9월 학기에 입학하게 되어 있었다. 8월에 해방되었는데 9월에 진학하니 학제는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 서울에서 제일 가는 것은 역시 경기중학이고 서울 동쪽 방면에서는 청량리에 있던 경기농업학교를 '경농'으로 부르며 그 다음으로 꼽았다. 양수리에서는 중앙선 기차로 청량리에 통학할 수 있는 열차편이 있었다. 지금은 없어진 지가 오래인 이 학교에 입시를 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학급에서는 1950년 3월에 5학년 졸업을 할 때까지 1등을 누구에게 내 준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 학교에 기차통학을 하는 게 그리 수월한 노릇이 아니었다. 딱 양수리에서 타고 가 청량리에서 내려 등교할 수 있게 배차되어 있는 단 한 편의 통학열차를 놓치는 날은 결석해야 한다. 조금만 늦잠을 잤다가는 그날 아침은 굶고 내달려야 하고, 허겁지겁 달려가 막 출발해 달리는 기차에 뛰어오르지 못하는 날도 결석이었다. 그러면서도 청량리에 이사해 나와 사는 외가에 기숙을 하거나 하지 않고 줄곧 통학을 하였다. 외가에는 무슨 전언 심부름을 하거나 문안 인사를 하러 들르는 수가 있을 뿐이었다. 그만큼 자립심을 기르고 남에게 의지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 집안의 정훈庭訓이었다.



▲석장옹이 평생을 전속부관으로서 모셔온 장도영 장군. 육군참모차장 시절의 모습이다

<사진 · 글 權五焄>

▲권중은옹이 그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회상에 잠겨 있다

7면에서 계속

흥인驪興人 장령掌令 민불해閔不害이고 다음은 진천인鎭川人 부사府使 송익宋翌이다. 3녀가 곧 현인비顯仁妃로서 명明의 제3대 영락제永樂帝 성조成祖의 후비后妃이다. 명 성조의 처음 시호는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이다. 공양왕 3년, 1391년 10월 26일에 출생하여 태종 8년, 1408년에 명 황제의 후궁으로 선택되는 진헌녀進獻女의 으뜸이 되고 태종 9년, 1409년에 명나라에 가 영락제의 현인비로 책봉되어 총애를 받았다. 황후가 죽자 황제의 명으로 육궁六宮의 일을 맡아보아 사실상 황후로 책봉되는 절차만 남았었으나 영락제가 북정北征을 나가며 황궁을 남천南遷케 한 사이 본국에서 하께간 여미인呂美人의 시기로 태종 10년, 1410년 10월 24일에 독살毒殺되니 수는 20세였다. 이같은 현인비의 운명은 조선조 초기 대명관계對明關係와 큰 연관이 있었다. 청淸의 예부상서禮部尙書로서 학자인 전겸익錢謙益이 지은 열조시집列朝詩集에 사적이 실려 있다.

종정공의 차남次男 목사공牧使公 집경執經 : 자는 자통子通 또는 통천通天이다. 고려 우왕禑王 6년, 1380년에 지공거知貢擧 염흥방廉興邦, 동지공거同知貢擧 박형朴形의 문과에 상주尙州에 거주하는 부장部將으로서 병과丙科 제7인으로 급제하였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문집에 그 문과 급제를 축하하는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목은에게서 배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관직이 지신사知申事(도승지)에 이르렀으나 고려말에 향리 상주에 퇴거하다가 조선 개국후 마지못해 출사한 것이 잠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 3년, 1403년 11월 15일자 실록에 '상주목사尙州牧使 권집경은 현재 본조本朝에 벼슬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부인 성주이씨星州李氏는 문하시중門下侍中 인임仁任의 딸, 대제학 조년兆年의 손녀인데 2녀만을 두어 후사가 끊어졌다. 묘소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성주곡聖主谷에 자좌子坐이고 외손 순천김씨順天金氏가 봉사奉祀하고 잇다. 사위는 맏이가 순천인順天人 참의參議 김유온金有溫이고 다음은 남양인南陽人 상호군上護軍 홍거안洪居安이다.

종정공의 3남 예빈공禮賓公 집지執智 :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로서 예빈공으로 호칭한다. 예빈시禮賓寺는 나라의 빈객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과 재상 의 접대 등을 맡아하는 관청이고 조선조에 그 으뜸 벼슬은 정正으로서 정3품 당하관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보임되었다. 판예빈시사는 이러한 예빈시의 판사인데 당상관 경대부로서 이런 직임을 맡거나 다른 직임에 있으면서 이를 겸직할 때 붙이는 직함이다. 공의 행적에 대해 보첩譜牒 등에 전하는 기록이 없다. 실록에 나오는 것을 보면, 태종 11년, 1411년 4월 20일자에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로서 진향사進香使가 되어 명나라에 가는데 진향사 정도의 정사正使가 되려면 물론 경대부급이어야 하고 전농시와 예빈시는 다 시寺가 붙은 관청으로서 그 직급이나 직제가 같다. 태종 15년, 1415년 4월 9일에는 전판전농시사로서 그 사위인 태종의 처남 민무회閔無悔의 일에 연루되어 의금부에 하옥되고, 12일에 심문받아 13일에 석방된다. 세종 4년, 1422년 6월 21일에는 예빈시의 판사로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디고 세종 8년, 1426년 7월 8일에는 지단양군사知丹陽郡事로 나가는 기사가 나온다. 품계가 높은 사람이 고을의 원으로 나갈 때 지군사知郡事 또는 지주사知州事라 한다.

배위 정부인貞夫人 해평윤씨海平尹氏는 찬성사贊成事 해평군海平君 진珍의 딸이고 3남4녀를 두었다. 장남 영창永昌은 하동현감河洞縣監이고 차남 영선永善은 진사進士인데 그 손자 인손仁孫은 문과 형조참의이다. 3남 영화永和는 지괴산군사知槐山郡事로서 증이조참의贈吏曹參議인데 그 손자 경우景祐가 문과 대사헌大司憲으로서 연산군 무오사화戊午士禍의 명현이고, 다음 손자 경희景禧는 문과 대사헌 예조참판, 다음 손자 경유景裕는 문과 교리校理로서 무오사화戊午士禍의 명현이다. 4인의 사위는 맏이가 호군護軍 남경수南景壽, 다음이 여흥인驪興人 문과 이성군利城君 민무회閔無悔인데 부원군 문도공文度公 제霽의 아들로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아우이다. 다음 원성인原城人 변상동邊尙仝은 현감이고 그 아들 유천군柔川君 효순孝順은 명선옹주明善翁主의 부마駙馬, 사위 정분鄭맡은 우의정, 정영통鄭永通은 대사성이다. 넷째 사위는 연안인延安人 이근강李根剛이다.

예빈공의 후손은 경기 양평 · 가평 · 여주 · 이천, 충북 음성 · 진천, 경북 경산 · 안동, 경남 진해, 부산, 전북 정읍 · 남원, 전남 고흥 등지에 세거하며 인구가 대략 1만5천 정도를 헤아릴 만큼 번창하고 있다.

<사진 權五焄>